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해소 전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사찰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 정부가 지원... 문화재청, 지원 예산 421억원 확정

전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은 오는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문화재청은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 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 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49조 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 정책총괄 관계자는 5일 "이 법에 따라 사찰 별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게 될지를 용역을 통해서 산출해서 구체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지원과정에서 사찰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파악한 후 각 지구에 있는 사찰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법이 시행된다"며 "그전까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용역을 통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집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에 달한다. 관람

료는 1인당 최소 1500원부터 최대 6000원까지 다양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중 가장 많은 관람료는 3000원대고 그 다음이 2000원대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오래된 사찰과 등산객 간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관람료 지원 예산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 관람료나 기부금 문제는 종단이 지난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부분"이라며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구체적 지원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관람료를 받는 조계종 소속 사찰을 70여 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

군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오페라 & 뮤지컬' 개최

19일 군산예술의전당서 새해 첫 출발 응원 희망 메시지 담아 전석 무료 진행

군산시립교향악단이 2023년 계묘년 희망찬 한해를 기원하며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신년음악회로 새해 시작을 알린다. 이번 공연은 새해 첫 출발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일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군산시립합창단 소프라노 김은경, 신은경, 메조소프라노 김신혜, 박채린, 테너 김동훈, 이진희, 바리톤 김건일, 문기현이 솔리스트로 출연한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을 시작으로 카르멘 'Habenera', '투우사의 노래', 오페라 박쥐의 서곡, 뮤지컬 오페라유령의 'Think of me', 뮤지컬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지킬 박사과 하이더 중 '지금 이 순간'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오페라와 뮤지컬 삽입곡으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풍성한 음악회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인터넷으로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예매가 가능하며 티켓 배부는 공연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배부한다. 또한 예매를 못한 경우 현장에서 티켓 수령이 가능하다. 이현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신년 음악회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시민들에게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라며 "여러 면에서 율초려들었던 2022년을 보낸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2023년에는 토기처럼 힘차게 뛰어올라 성장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며 따뜻한 클래식 음악보다는 친숙한 곡으로 시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공연문의는 시립교향악단(063-454-5556) 또는 군산예술의전당(063-454-5528)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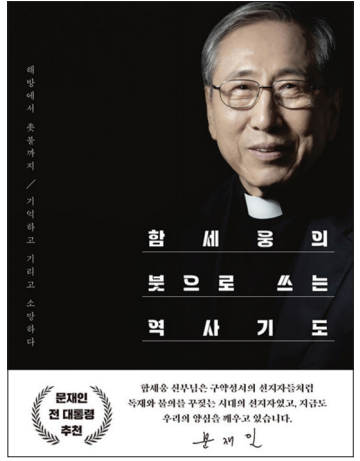


군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오페라 & 뮤지컬'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추천사 "우리의 양심 깨우고 있다"

"함세웅 신부님은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처럼 독재와 불의를 꾸짖는 시대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사)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기도' (리의 눈)는 함세웅 신부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대사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결성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년여 간의 수감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사제와 투사로 살아온 그가 온몸으로 겪은 체험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로 쓴 추천사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사건들을 증언하는 글이 절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함세웅 신부님은 '시대와 함께, 민족과 민중과 함께 하는 교회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제의 길을 걸었다"고 전했다. 책은 '조선건국위원회', 4.19 혁명, '유신 헌법 철폐'를 거쳐 '6월항쟁',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르기까지 52개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거처온 현대사회의 현장을 그린다. 민



주화운동부터 인권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함 신부가 몸 담았던순간과 그만이 알고있는 3.1 민주구국선언, 명동성당 5박 6일 농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탄생 등에 얽힌 비화도 공개된다. /뉴스



고창군 판소리전수관이 올해 상설국악교실 6개 과목 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창군 판소리전수관, 상설국악교실 강사 위촉장 수여

고창군 판소리전수관이 올해 상설국악교실 6개 과목(판소리, 가야금, 고법·장단, 대금·단소, 농악, 한국무용) 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고창군에서 인력무형문화유산인 우리 소리를 이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설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판소리 명창공연, 판소리 최고 권위의 동리대상 시상,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 등을 열고 있다. 특히 해마다 남녀노소 다양한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면서 고창군민들의 삶속에서 우리가락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상설국악교실은 주 3회(월~수) 오후 3시, 4시, 5시, 7시에 판소리반, 가야금반, 고법·장단반, 대금·단소반, 농악반, 한국무용반 등 6개반의 수업이 이뤄지며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다. 상설국악교실 수강료는 성인 월 1만원, 학생 5000원이다. 상설국악교실 참여를 희망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문화예술과(560-8065)로 연락하면 된다. 심석섭 고창군수는 "올해 동리정사 재현사업을 마무리해 예술이 살아숨쉬는 고창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예술위 50주년 기념 '엠블럼' 발표... 시간의 흐름·역사성 강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발표했다. 엠블럼은 숫자 50과 예술위원회의 5가지 브랜드 컬러를 사용한 동심원이 그려지는 모습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예술위는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설립 50주년 내용을 소개하고 다

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작된 엠블럼 매뉴얼을 예술위 누리집에 공개하고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술위는 훌륭한 예술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예술 창작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고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1973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모태로 2023년인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뉴스



전주매일 금연캠페인